

課題文③

한글 꽃 (ハングルの花)

한글 꽃이 피어났다.

열일곱의 꽃잎과 열하나의 꽃술이 서로
어우러져 춤추며

백성들의 입으로 세상 가득 피어났다.

한글 꽃이 씨방을 만든다.

육설과 외래어의 모진 바람 속에도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곳곳에
가장 쉬운 말들로 뿌리를 뻗는다.

한글 꽃이 씨방을 터트린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자판들이 줄임말로
휘방꾼이 되어도
곳곳이 굴하지 않는 우리말 열매들이
입에서 입으로 수를 놓는 한글 꽃

한글의 꽃씨가 퍼져나간다.

간편함과 우수함의 날개를 달고
한류의 문화를 타고 한글의 꽃씨가
퍼져나간다.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몽게몽게 피어나는 구름처럼
한글도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한다.

ハングルの花が咲いた。

十七枚の花びらと十一の花^{かずい}薬ⁱが
たがいに合わせて踊り

百姓達の口によって世界中にたくさん咲いた。

ハングルの花が子房^{しぼう}ⁱⁱを作る。

悪口と外来語の激しい波風の中でも
東方の美しい大韓民国のいたる所に
一番やさしい言葉で根っこを張る。

ハングルの花が子房をふき出す。

インターネットや携帯電話のキーボードが
略語によって邪魔者になっても
ひるまず屈することのないウリマルの実たちが
口から口へと刺^{ししゅう}繍^うするハングルの花

ハングルの花の種が広がってゆく。

手軽さと優秀という(名の)羽を着けて
韓流の文化に乗ってハングルの花の種が
広がっていく。

ろうにやくなんによ
老若男女すべての愛と保護の中で

もくもくとわきあがる雲のように

ハングルも世界に向かう準備をする。

課題文③

한글의 꽃이 피어난다.

하늘과 땅, 사람 모두가 어루만지고
숨결을 불어넣어

소박하고 맑은 꽃이 피었다.

한글의 열매가 맺힌다.

나라와 국민의 정성으로 피워내는
흰 종이나무에 감정글자 열매가
탐스럽게 맺힌다.

한글의 열매가 영근다.

좁은 화면과 바쁜 현대의 횡방에도
사방에서 얼굴 붉히는 열매들이 눈길
손길 닿는 곳마다 영근다.

한글의 꽃씨가 퍼져나간다.

우리 모두의 소망과 희망을 담아서
저 멀리멀리 바람을 타고 떠나간다.

ハングルの花が咲く。

天(空)と土、すべての人がなでさすり
息を吹き込み

素朴できれいな花が咲いた。

ハングルの実が実る。

国と国民の真心で咲かせる
真っ白い紙の木に黒い文字の実が
見事に実る。

ハングルの実が熟れる。

狭い画面とせわしない現代の妨げにも(負けず)
四方で顔を赤める実たちのまなざし
手を差し伸べる先々で実が熟れる。

ハングルの花の種が広がってゆく。

私たちの望みと希望をこめて
はるか遠く遠くへ風に乗り旅立つ。

i ^{かずい}花薬=雄しべと雌しべ

ii ^{しぼう}子房=雌しべの下部にあり、ふくらんで
袋のようになっている部分